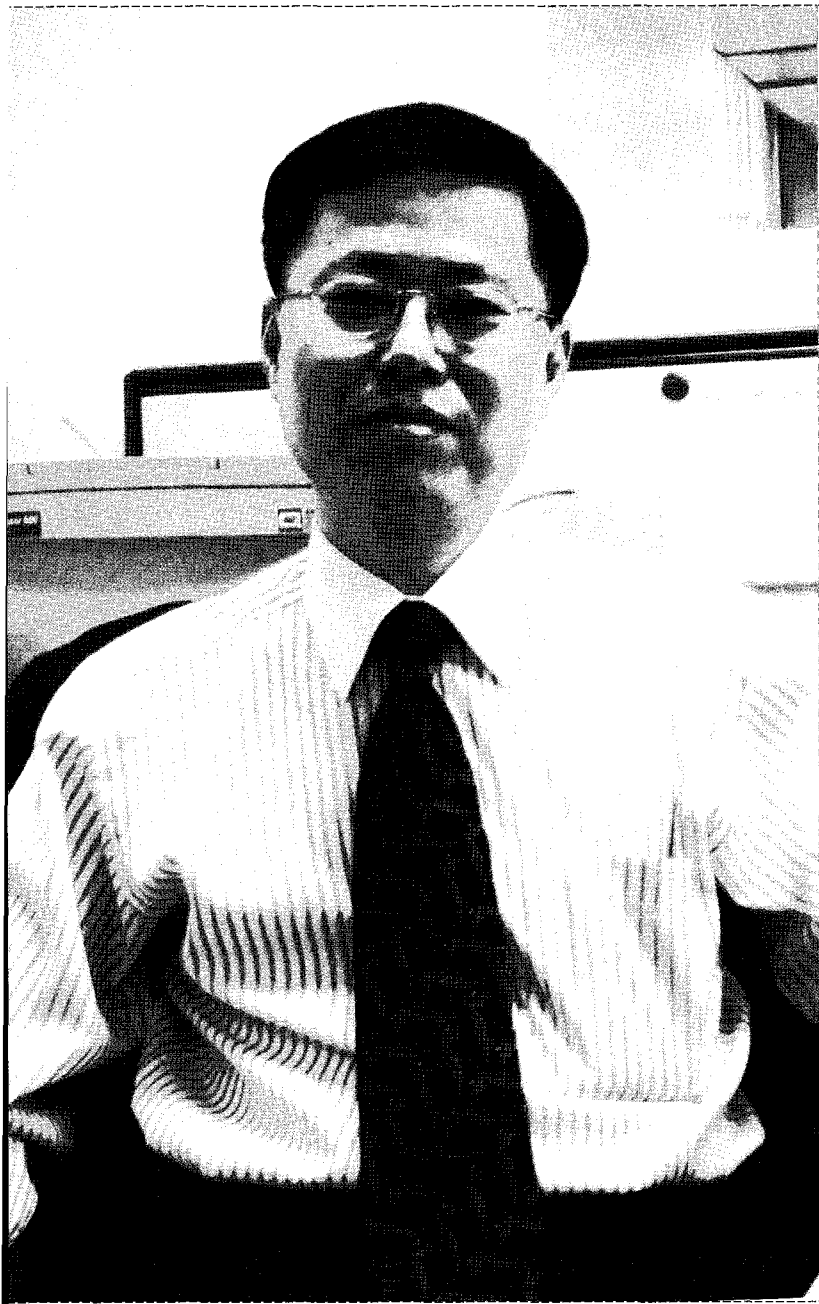


국민은행 'ESCO 신용대출 및 매출채권 팩토링 상품' 출시

- 비용 · 투자부담 · 부채비율 줄여 일석삼조의 효과

■ 이애경 기자(ak07@energycenter.co.kr)



ESCO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대규모 민간자금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이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시설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에너지절약사업에 3천억원을 투입키로 한데 이어 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도 최근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Factoring) 요소를 가미한 ESCO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 지난 4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이처럼 민간은행이 에너지절약사업 지원에 발벗고 나서는 데는 향후 에너지절약사업의 시장성과 사업성을 인정했기 때문. 국민은행 중소기업팀의 박규병 차장을 만나 이번 상품의 특징 및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에 'ESCO 신용대출 및 매출채권 팩토링 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적인 에너지사업에 기여하고 공익성에 일조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

ESCO사업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ESCO 신용대출 및 매출채권 팩토링 상품'을 출시하게 된 것도 향후 에너지절약사업의 시장성과 사업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이 7,666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47% 증가함으로써 이번 상품이 ESCO들과 은행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출시한 'ESCO 신용대출 및 매출채권 팩토링 상품'은 기존의 ESCO대출상품과는

이번 상품은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 요소가 복합된 ESCO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상품이다. 기존의 상품이 ESCO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대출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새로 내놓은 상품은 시설 완공 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은행이 할인 매입하는 새로운 대출방법이다.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다른 대출상품과의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

이번 상품은 일반대출 형태에 팩토링 요소가 복합된 ESCO고객 맞춤형 상품으로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한 저금리 상품이다. 기존의 상품이 ESCO를 대상으로 시설자금 대출만을 지원했다면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새로 내놓은 상품은 시설 완공 후에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은행이 할인 매입하는 새로운 대출방법이다.

이번 상품으로 인해 ESCO는 외상·신용판매를 해도 현금을 받은 것과 같이 자금이 조기에 수입됨으로써 투자비 회수와 이윤을 빨리 실현시킬 수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획득하기에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이 할인대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채권 관리와 회수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덜 수 있다. 매출채권은 팩토링(Factoring)으로 전환되고 대전(代錢)의 상환은 에너지절약시설을 사용하는 에너지사용자(아파트, 학교, 공공기관, 일반산업체 등)가 할부금 방식으로 상환하게 되어 ESCO와 에너지사용자, 은행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번 상품의 구체적인 업무 플로우트에 대해 설명해 달라.

‘ESCO 신용대출 및 매출채권 팩토링 상품’은 에너지절약시설 정책자금을 최장 10년 동안 대출받은 후 해당시설이 발행하는 매출채권을 매입

하는 형식이다. 대출금리는 차입금리에 업체별 가산금리를 더해 기업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연 3~6%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대출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 에 등록된 ESCO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추천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당은 전국의 모든 국민은행에서 가능하며 특히 전국 137개의 기업금융지점 이용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 출시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 은행 입장에서 대출상품의 포트폴리오 추가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ESCO사업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에너지사업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공익성에도 일조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상품은 은행과 ESCO, 에너지사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국민은행의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 보고 있다. ☺